신명나는 가족법회에 발걸음 '절로'

봉은사, 월 가족법회에 레크리에이션 도입

"훌랄라라~ 훌랄라라~ 훌랄라랄라 가위바위보!"

"와아아~ 이겼다!"

"진 사람은 손깍지를 하고 이긴 사람 목에 걸어주세요. '오늘 잘 걸렸다'는 마음으로 꽉 잡으세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간지럽히세요!"

11월 마지막 일요일인 27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당에 어른과 아이들의 신명나는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전화를 받으러 잠시 법당 밖으로 나온 이에게 묻자 '가족법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가족법회는 가족들끼리 절에 와서 불공 올리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게 대부분인데 무엇이 이리도 신난 걸까?

봉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新) 개념 가족법회가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불자가족을 위한 '공감 레크리에이션' 시간이다. 공감 레크리에이션은 오전에 봉행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요법회'에 이어 오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족법회가 일반법회와 다르지 않게 진행돼 지루할 수 있다는 반성에서 마련한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날 첫 선을 보인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등 불자가족 50여 명이 참여했다.

"손동작과 함께 옆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라고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가 나올 때마다 안아주세요."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진행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래를 부르며 서로

가족 위한 '공감 레크리에이션'
법회 후 오후에 별도로 진행
부모 · 자녀 유대감 형성 도와
세대별 사찰 유입 확대 계획

를 부둥켜안았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부모의 표정과 품에 안겨 두 눈을 꼭 감은 아이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다. 이후에도 박수게임을 비롯해 하트 그리기, 기차놀이, 모양 만들기, 림보 등 간단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진행자의 유쾌한 입담이 펼쳐졌다. 2시간 동안 가족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껴안고, 환호하며 정을 쌓았다.


봉은사 가족법회 레크리에이션 참가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처남과 조카 등 6명을 데리고 가족법회에 참여한 정헌(46) 씨는 "아이들과 유아법회를 다니는데 가족법회는 처음이다. 처남댁이 서울에 놀러 와서 좋은 기회라 생각해 참가하게 됐다"면서 "절에서 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어 좋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아이들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온 김규리(7) 양은 "집에서도 놀지만 절에서 할머니와 함께 놀 수 있어서 즐겁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한 뒤 정례화해 불자가족의 사찰유입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인류의 원천은 가족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에서 기도하고 불공 올리는 것도 나보다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현대사회에서 '가족'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져 가족개념이 약화됐다. 불자가족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군포교 원력, 위법망구 자세로 정진"

조계종 군종교구, 제48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며 장병들을 위한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군승들을 격려하고,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30일 국방부 일원서 '제48주년 군승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군종교구는 국방부 원광사에서 2대 교구장 자광스님을 계사로 포살법회와 '순직 군승 합동추모재'를, 이어 국방컨벤션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예비역 장군과 군승, 불교계 단체장, 군승 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은지 4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220곳 부대와 270여곳 법당을 다니며 군포교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역, 예비역 군승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군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장병들의 따뜻한 병영생활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1억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군승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는 현광 진병은 법사.

군승들을 공군10전투비행단 현광 진병은 법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제자로서, 부루나 후예로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서원과 정진을 다짐하며, 장병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군승이 되겠다"고 원력을 모았다.

윤호섭 기자

혁신운동 · 불자상 정립 방안 모색

12월 10일 조계종 포교원-동국대 종학연구소 연찬회

신행혁신운동과 불자상 정립을 포교종책 기조로 삼은 조계종 포교원이 연찬회를 통해 관련 방안을 모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함께 12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7대 포교원 5차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 주제는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다.

연찬회에서는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이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을, 박희승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사업단장이 '신행혁신운동에 따른 불자상과 청규 제정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명법 스님(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유정길(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 백도수(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 씨가 참여한다.

윤호섭 기자

노년의 펜 끝으로 담아낸 '내 인생의 사계'

은평노인福, 리모델링 기념 및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

어르신들이 집필한 자서전 출판을 통해 노년의 새로운 가치를 되짚어본 행사가 열렸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 이하 은평노인복지관)은 11월 30일 복지관 2층 소강당서 '새단장 기념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은평노인복지관은 '2016 어르신 자서전 쓰기' 사업을 소개하고 자서전쓰기반 글모음집 〈내 인생의 사계(四季)〉를 배포했다.

자서전쓰기반은 이성림 명지대 교수의 지도 아래 지난 4월~8월 매주 금요일 2시간 동안 글솜씨를 연마, 〈내 인생의 사계〉를 통해 총 427페이지 분량에 자신들의 삶을 기록했다.

'꼴찌 인생 파노라마'를 쓴 엄양현(79) 씨는 "어려운 결혼생활을 겪으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다. 이번 자서전 출판을 통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생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11월 30일 복지관 2층 소강당서 '새단장 기념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나이'를 쓴 이창규(83) 씨는 "80세가 넘은 인생의 황혼기에 내 삶을 글로 표현하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이야기를 전할 창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성림 교수는 "옛 말 둔필승총(鈍筆勝聰)은 '세상살이를 둔한 펜으로라도 적어 놓는 것이 총명한 기억력을 이긴다'는 뜻이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인생살이를 기록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주변엔 감사하며 자손들에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했다"며 "여름 내내 읽고 수정한 글들을 읽고 어르신들과 공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판기념식에 앞서 복지관 리모델링 경과보고서 김승자 관장은 △복지관 전체 개별 난방시스템 △바닥 타일 △화장실 △중앙 출입문 △프로그램실 △인덕문고 등을 개보수 또는 설치했음을 알렸다. 은평노인복지관은 지난 9월 5일~11월 18일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엔 삼천사 회주 성운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성흠제 은평구의회 의장, 김미경 서울시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 난타동아리 · 은평청춘합창단 공연 등을 즐겼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10년째 해외에 한국 알리는 신행 귀감

금강경독송회, 제10회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

불교신행단체로서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10년째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어 눈길을 끈다.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내년 1월 8일까지 세계 각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 작품을 공모한다. 에세이는 금강경독송회 산하 한국정신과문화알리기회가 발간한 〈세종대왕〉을 읽고 써야 한다.

대상작은 고등학교 500달러, 중학교 300달러다. 최우수 · 우수상 등도 시상하며, 결과발표는 내년 3월 5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cpp.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강경독송회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 위인(원효대사 · 세종대왕 · 이순신 장군 · 선덕여왕 등), 충효예(신라 화랑 · 효녀심청 · 의좋은 형제 · 논개 등), 문화유산(금속활자 · 고려청자 · 팔만대장경 · 석굴암 등)을 소개하는 책을 6개 언어로 총 75만권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했다. 미국에서는 500개 대학과 6300개 중고등학교에 책자와 안내서를 보내고, 매년 독후감 대회를 열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재보호 우수협력자 포상식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윤호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2월 중
◆ 개 강 일 :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